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Sol-NURSING TIMES

SOL은 又松의 소나무를 의미합니다.

제 19호 2024년 2학기(2024. 03. 01 - 2024. 08. 31)



19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SOL-Nursing Times

편집장: 김서연(솔타임즈국장)
발행처: SOL-Times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사무실
☎ 042-630-9290
우송대 서캠퍼스 보건의료과학관 3층

* 1년에 2회 발행됩니다.



CONTE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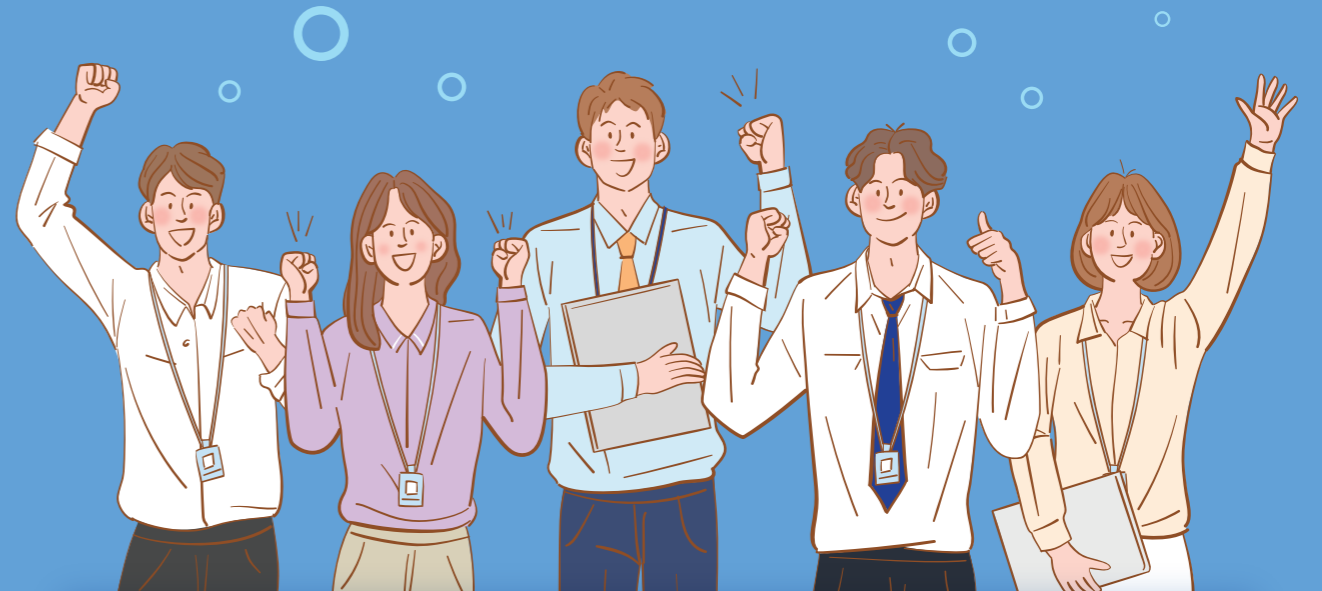
<p>05 page</p> <p>1. 우송간호 역량 강화</p> <p>(1) 취업역량 및 학습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결과 <p>(2) 임상실무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아산병원 실습 - 삼성서울병원 실습 - 강남 세브란스병원 실습 - 서울 보라매병원 실습 - 강남 차병원 실습 - 겨울학기 실습 - 건양대학교병원 실습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실습 - 국립암센터 실습 - 명지병원 실습 	<p>18 page</p> <p>3. 우송간호 이모저모</p> <p>(1) 즐거운 대학 탐구생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새내기 콘테스트 - 2024 우송체육제 - 우송간호의 날 - 시험기간 이벤트 - 스승의날 - 세계 헌혈자의 날 - 버디버디 활동 - 절주 동아리 활동 - 치매파트너즈 활동 - 냥아치 동아리 소개 <p>(2) 간호학과 일상 엿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도 간호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2024년도 교학 간담회 - VS(Veritas Studium) - 워크숍 - 2024년도 간호학과 전체 미팅 - 2024년도 나이팅게일선서식 - 1학년 생명 존중 프로그램 - Sol-Challenge Program
<p>11 page</p> <p>2. 미래의 '후배양성에 힘쓰는 우송간호</p> <p>(1)수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교육 인증평가 5년 획득 - 전공 체험을 통한 대학 생활 미리 보기 - 2024 WSU 전공 체험 - 2024 WSU 찾아가는 교수특강 - 2024년 1학기 신입 교수 인터뷰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육목적과 목표

건학이념	자립 · 단정 · 독행
대학비전	THE SMART UNIVERSITY FOR THE WORLD
학과비전	간호의 세계화, 세계화를 준비하는 글로벌 간호리더
교육목적	간호교육과 학술연구 및 사회봉사를 위해 자아실현과 국가발전 및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간호인재를 양성한다.
교육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식을 융합한다. 2. 임상추론을 통해 안전하고 질적인 간호를 설계한다. 3. 보건의료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최신보건의료기술을 활용한다. 4. 법적 윤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간호 전문직관을 확립한다. 5. 보건의료팀 내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한다. 6. 지역 및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대상자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리더십을 함양한다.

우송대학교 프로그램 학습성과

인재상	프로그램 학습성과
창의융합적 간호인재	PO1. 인간돌봄과 관련된 교양지식과 간호과학적 지식을 습득한다. PO6.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인구집단 건강을 관리한다.
실용적 간호인재	PO2. 임상추론을 통해 간호상황에 적합한 간호를 제공한다. PO8. 안전과 질 향상 원리를 간호에 적용한다. PO5. 정보통신과 최신보건의료기술을 활용한다.
글로벌 간호인재	PO3. 법적 윤리적 기준에 따라 간호를 수행한다. PO4.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건강문제해결을 위해 보건의료팀과 협력한다. PO7. 개인과 전문직 발전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개발한다.



우송간호의 첫걸음

2024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취업현황



2024년도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졸업생의 신입 간호사 채용 합격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복을 포함하여 삼성서울병원 1명, 강북삼성병원 1명, 서울성모병원 2명, 세브란스병원 5명, 강남세브란스병원 1명, 서울 보라매 병원 3명,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2명, 용인세브란스병원 3명, 충남대학교(본원,세종) 6명, 을지대학교병원(노원, 의정부, 대전) 23명, 단국대학교병원 2명, 인천성모병원 2명, 가천대 길병원 7명, 인하대병원 3명,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3명 등으로 많은 학생들이 상급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2024년도 12기 졸업생들이 서울의 Big5병원 9명, 상급종합병원 24명, 국공립병원 13명, 대학병원 51명 등이 합격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 계속하여 우송 간호를 빛낼 학우들의 앞날을 응원한다.

◆ 김서연 기자 / 사진 출처: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홈페이지

서울아산병원 실습 인터뷰 | 최예진 학생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실습한 부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최예진입니다! 제가 실습한 부서는 서울아산병원의 135병동으로 소아심장외과, 소아심장과, 소아 감염내과 등의 진료과를 보는 병동입니다.

Q. 실습을 통해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아동은 성인과 다르게 어떻게 간호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었고, 대상자와 라포형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한 심장 관련 과이다 보니 아동 심질환과 관련된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호사 선생님의 역할을 보며 미래에 내가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그 간호사가 되기 위해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Q. 이번 실습 현장에 대한 느낀 점과 실습 도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A. 서울아산병원에 있는 기계와 체계가 너무 잘 갖춰져 있어 환자분들은 안전하게 간호받을 수 있어서 좋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안전하게 간호를 시행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는 제 실습 기간에 서울아산병원 개원기념일이 있어서 점심으로 되게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날이었는데, 컨퍼런스가 있어서 시간이 촉박했지만, 친구랑 아무지게 개원기념일 식당 밥을 먹고 컨퍼런스에 시간맞춰 갔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김서연 기자 / 사진 출처: 최예진 학생

강남 세브란스병원 실습 인터뷰 | 전민주 학생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실습한 부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전민주입니다. 저는 올해 강남세브란스 NICU(신생아중환자실)에서 여름학기 동안 실습을 했습니다.

Q. 간호대상자로서 성인과 아동 환자의 다른점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르게 느껴졌나요?

A. 성인에 비해서 신생아는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의 성인 환자는 고정을 위해 테이프를 붙이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 환자는 피부가 연약하기에 특수 실리콘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식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모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Q. 실습하면서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나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A. 신생아 간호와 성인 간호는 매우 다르기에 실습하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성인 파트만 실습을 다녀오다가 NICU로 가니 간호사 선생님께서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간호 행위 하나하나 이해가 가지 않았고 특히 교과서에는 신생아의 특징이나 질환에만 배웠지, 어떻게 간호하는지는 상세하게 배우지 못했기에 실습에서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실습하며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은 노트에 적어놓고 실습이 끝난 뒤 집으로 가 따로 교과서나 인터넷에 찾아보고 공부하였습니다. 찾아보아도 도저히 모르겠는 경우에는 간호사 선생님께 가서 질문하며 하나하나 자세히 이해하며 공부하고 배워갔습니다.

◆김서연 기자 / 사진 출처: 전민주 학생

삼성서울병원 실습 인터뷰 | 김서연 학생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실습한 부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김서연입니다. 제가 실습한 부서는 삼성서울병원의 14E 병동으로 신경외과와 정형외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는 신경외과 위주로 운영 중입니다.

Q. 현장 실습하면서 새롭게 배운 지식이 있나요?

A. 저는 감마나이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 계기가 된 감마나이프 센터 견학이 기억에 남습니다. 감마나이프센터에서는 실제 프레임, 마스크를 보여주시며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의 사항, 적응증 등을 예시를 들어주시며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프레임의 핀을 뽑는 것까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감마나이프라는 수술이 실습 초기에는 많이 생소했었는데 이번 실습을 통해서 수술 전, 중, 후 간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갈 수 있어서 유의미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Q. 이번 실습 현장에 대한 느낀 점과 변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이번 실습 현장에서 '미래 의료'라는 비전에 걸맞게 도입되어 있는 기기나 시설, 시스템 활용이 더 편리하고 자동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판적 사고와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한 근거 기반 간호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실습을 통해 이론으로만 배웠던 간호 수행을 직접 보고 환자분들과 소통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바라보며 간호사가 가져야 할 태도를 배웠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도 또한 더욱 높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전공 공부도 더 정진할 것을 다짐하고 이후 실습에서 환자분들과의 대면 속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강다현 기자 / 사진 출처: 김서연 학생

서울 보라매 병원 실습 인터뷰 | 김지민 학생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실습한 부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김지민입니다. 이번 여름학기 실습으로 서울 보라매 병원 산부인과와 분만실에서 1주씩 총 2주 동안 실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Q. 현장 실습하면서 새롭게 배운 지식이나 간호 수행이 있나요?

A. 학교에서 이론 수업을 들었던 내용을 차치 선생님님께서 인형을 통해 설명해 주시고 더불어 수술실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분만의 과정을 실제로 접하며,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다녀온 후의 각 단계에서 어떤 간호가 필요하고,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왕절개 수술 전 검사인 NST 검사, 자궁 수축 모니터 링 및 제왕절개 후 돌아오신 산모분의 복부를 눌러 오로를 빼주는 간호 수행 및 이후 자궁 저부 위치 확인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Q. 이번 실습 현장에 대한 느낀 점과 변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이번 실습을 통해 이론으로만 배웠던 간호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경험하며 얻어가는 것이 많은 실습이었습니다. 산부인과와 분만실은 모든 부서를 통틀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모든 여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부서이며, 산모와 가족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출산이라는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서연 기자 / 사진 출처: 김지민 학생

강남차 병원 실습 인터뷰 | 박지혜 학생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실습한 부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박지혜입니다. 강남차병원 31병동에서 여성간호학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병동은 부인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자궁근종이나 맘모툼 시술 환자들이 가장 많았고 항암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Q. 실습을 통해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이론으로 공부했던 부인과 질환의 증상과 치료 과정을 실습을 통해 직접 경험하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전·후 간호를 실제로 보고 실습해 보면서 출혈이나 감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감한 생식 건강 문제를 다룰 때 간호사로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Q. 이번 실습 현장에 대한 느낀 점과 실습 도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A. 수술 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힘들어하던 환자분께서 시간이 지나 다른 환자들과 어울려 다니시기도 하고 웃으며 퇴원하는 모습을 지켜본 것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환자의 회복 과정을 보면서, 단순히 약을 투여하거나 물리적 간호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희망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등 정서적인 간호도 중요하다는 걸 깊이 느꼈습니다. 건강히 퇴원하시는 모습을 보니 실습생 신분으로 직접적인 간호를 제공해 드린 것은 없지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김서연 기자 / 사진 출처: 박지혜 학생

건양대학교병원 실습 인터뷰 | 송혜림 학생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실습한 부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송혜림입니다. 저는 가장 최근에 건양대학교병원의 응급중환자실을 다녀왔습니다. 응급중환자실에서는 응급실을 통해 온 환자들을 간호하며 주요 간호로는 patient monitor를 통한 전체 활력징후 모니터링, 매 듀티가 바뀔 때마다 시행하는 의식 상태 사정, 흡인, 산소요법, 비위관 영양, back care 등이 있습니다.

Q. 이번 실습 현장에 대한 느낀 점과 실습 도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A.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가 많았는데 이런 환자들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우리 학교 실습생들의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한 실습생이 귀여운 그림을 그려주며 설명해 주자 환자분이 좋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Q. 실습을 통해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응급중환자실 내에는 일반 병동에서는 보기 힘든 여러 기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인공호흡기와 CRRT를 자주 보았는데,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이유와 작동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김서연 기자 / 사진 출처: 송혜림 학생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실습 인터뷰 | 김은진 학생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실습한 부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김은진입니다. 저는 세종충남대학교병원 61병동에서 성인간호학실습2를 진행하였습니다. 61병동은 내과 병동으로 소화기내과, 신장내과로 이뤄졌으며 위암, 간염, 요로감염 등의 질환을 다루는 병동입니다. 또한, 주된 치료와 검사로는 항암화학요법, ERCP(내시경역행췌관개자조영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혈액투석 등을 시행합니다. 그렇기에 61병동의 외래근무 실습으로는 내시경실과 투석실에서 실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1병동은 41병상으로 3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한 간호사가 3~4개의 병실을 담당하여 환자를 간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Q. 실습을 통해 변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실습을 나가기전에는 이론을 통해서만 간호학에 대해 공부하여 그 질병에 관한 증상, 검사, 간호 등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습을 통해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을 볼 수 있었고 한 질환만 가진 게 아닌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 매우 많아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고 '왜 이 상황에서 이런 간호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통해 더욱 공부하게 되고 부족한 지식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직접 바이탈, BST 측정을 하며 의사소통, 공감하는 능력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김서연 기자 / 사진 출처: 김은진 학생

국립암센터 실습 인터뷰 | 정효진 학생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실습한 부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정효진입니다. 저는 국립암센터 4B 병동에서 아동간호학 실습을 했습니다. 4B 병동은 주로 소아청소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병실만 성인 뇌척수종양 환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Q. 현장 실습을 하며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나요?

A. 실습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수혈 과정이었습니다. 아동의 체중에 따라 수혈 양을 조절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아동을 돌볼 때는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같은 기본적인 개인위생 관리가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혈압 측정 후 커프를 바로 소독하는 등 실습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세심한 부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Q. 교내실습과 현장실습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A. 교내 실습과 달리 현장 실습에서는 실제 환자와 보호자와의 라포 형성 경험이 새로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동기들과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는 수준이었다면, 현장 실습에서는 환자와 보호자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김서연 기자 / 사진 출처: 정효진 학생

명지병원 실습 | 정소민 학생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실습한 부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정소민입니다. 저는 명지병원에서 아동간호학 과목을 실습하였습니다. 제가 실습한 병동은 중증도가 별로 높지 않았고 폐렴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가와사키, 뒤시엔느 근위축증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Q. 실습하면서 배운 점과 이론 공부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실습하면서 간호사 선생님께서 수액 세트 연결하는 방법과 가장 기본적인 검사인 피검사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직접 약물도 섞어보고 약품과 간호 물품을 정리하면서 이론에서 배웠던 약물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이론에서만 배웠던 여러 가지 술기들을 관찰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접 활력징후를 측정하면서 환자와 보호자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라포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Q. 간호대상자로서 성인과 아동 환자의 다른 점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르게 느껴졌나요?

A. 성인 환자와 아동 환자의 활력징후 정상범위가 다르며 아동은 연령별 정상범위도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습하기 전 각 연령의 활력징후 정상범위에 대해 숙지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아동 실습을 하면서 아동 환자가 주삿바늘에 대해 트라우마가 훨씬 심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채혈이나, 수액 맞기 전후 트라우마 케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서연 기자 / 사진 출처: 정소민 학생

겨울학기 실습 인터뷰 | 고예림 학생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실습한 부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고예림입니다. 지난 겨울학기 실습으로 정신간호학실습(국립공주병원), 간호관리학실습(분당서울대병원) 그리고 내과계 중환자실 실습(용인세브란스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다녀왔습니다.

Q. 실습 도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A. 지난 여름학기 실습은 병동 위주로 실습을 나갔다면 이번엔 다양한 과목과 부서로 실습을 나갔다 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한 달동안 실습을 했는데 실습 이전에는 많이 힘들 것 같아 간호사가 되었을 때 피하고 싶은 부서라고 생각했는데 실습을 하면서 배울 점도 많고 또한 중증도가 병동에 비해 높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껴 중환자실에 대한 매력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병동 실습 때와는 또 다른 케이스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나중에 임상에 나갔을 때 원하는 부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 실습 도중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나요?

A. 중환자실에서는 PCD 삽입술과 같은 처치를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수행하는데 하루는 전공의 선생님께서 가운을 착용하고 가까이 와서 보라고 하셔서 전공의 선생님의 설명도 듣고 프리젠퍼 선생님 대신 무균술을 지키면서 물품 전달도 직접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병동에서는 보기 힘든 상황이고 또한 가까이에서 관찰하면서 직접 물품 전달하는 등의 일은 거의 없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더 뜻깊고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습니다.

◆김서연 기자 / 사진 출처: 고예림 학생

간호교육인증평가 최고 등급 '5년 인증' 획득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한 '2024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5년 인증'을 획득하며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인증 기간은 2024년 6월 11일에서 2029년 6월 10일까지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간호 학생의 성과를 지원, 관리하기 위해 교육성과와 교육과정 운영, 교육여건 등이 국가, 사회, 간호 전문직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인정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모든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 기준에 부합하였다. 이번 평가를 통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환류 과정을 바탕으로 간호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국제 경쟁력을 가진 간호사 양성을 위해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호사 면허를 함께 취득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바이다.

◆황지은 기자 / 사진 출처: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홈페이지

우리는 예비 우수인

전공 체험을 통한 대학 생활 미리보기



고교 1, 2,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공 체험을 통한 대학 생활 미리 보기' 프로그램이 5월 18일 토요일 10시부터 16시 30분까지 우송대에서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우송예술회관에서 모의 면접 시연이 있었으며 오후에는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에서부터 보건복지대학에 이르기까지 6개의 단과대학의 다양한 학부들이 학생들과 전공별 체험학습을 진행하였다. 그중 간호학과는 총 3개의 조로 나누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와 같은 외국어 체험 및 활력징후 강의와 퀴즈, 해부학 프로그램, 기본간호학 실습 체험으로 활력징후와 비강 캐놀라 시뮬레이션 및 체험, ICU(중환자실), OR(수술실), PICU(소아집중치료실)로 이루어진 Sol Hospital 체험을 진행했다. 전공 체험을 마치고 간 학생들 모두 우수인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 황예지 기자 / 사진 출처: 최재인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과 만남

찾아가는 교수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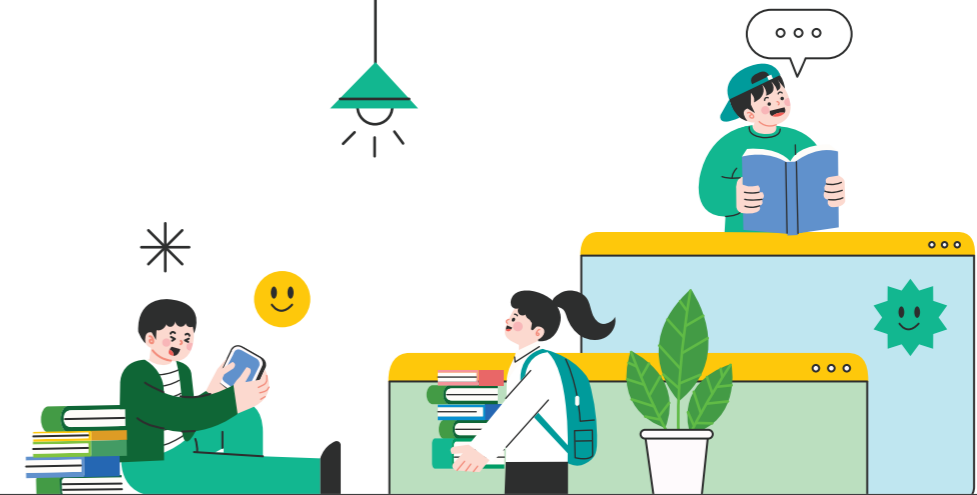
간호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전공체험

찾아가는 전공체험



2024년 5월 14일과 16일에 각각 산남고, 동북고에서 찾아가는 전공 체험이 진행되었다. 학교 및 학과 전공 홍보를 위해 시행되는 찾아가는 전공 체험은 멸균 장갑 착용 방법, 활력징후 측정 프로그램을 통해 외과적 손 위생 영상을 시청하고 멸균 장갑을 착용하며 간호사로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기술들을 체험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언어 체험을 통해 세계화를 준비하는 글로벌 간호 리더를 목표로 하는 우송 간호만의 특별한 국제 간호 과정을 소개하며 우수 간호를 알렸다. 이외에도 간호학과 실습 과정 소개(교내, 교외 실습), 교내 실습실 소개 및 그곳에서 진행되는 수업 내용과 학과 동아리, 버디버디와 짝 선배, 복지국에서 준비하는 시험 기간 이벤트를 소개하였다. 이번 찾아가는 전공 체험을 통해 많은 고등학생이 자신에 맞는 진로를 찾고 대학교를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 정나윤 기자 / 사진 출처: 서자민 학생



찾아가는 교수특강이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간호학과 진학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고교측 학생들에게 간호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르쳐주는 특별한 시간이다. 2024년 1학기 교수특강으로 정수경 교수는 김천여고, 대성여고에 방문하였고 이현주 교수는 운천고, 도안고 학생들을 만났다. 김진숙 교수는 이산고, 매홀고, 태안고를 방문하여 간호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미래간호의 꿈에 가까워지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간호사의 진로, 해외간호사, 간호사의 자질,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만의 특징점을 강의하였고 입학전형과 수시면접 QnA로 교수특강을 구성하였다. 1학기 찾아가는 교수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를 찾고 우수 간호인으로 만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강다현 기자 / 사진 출처: 간호학과 과사무실

2024년 1학기 신임 교수 인터뷰

2024년 우송대학교가 코로나 사태 이후의 활기참을 되찾아 따스한 봄을 마주한 시기, 간호학과에 신임 교수가 들어왔다. 권은옥 교수는 우송대학교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학생들을 아끼는 교수이다. 화려한 해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권은옥 교수의 포부와 견해를 듣고자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서울대병원 본원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로 시작하여 수간호와 간호과장으로 근무했으며 병원 중환자간호사회 회장을 맡았었습니다. 2019년 암병원 간호과장을 하며 Kwait의 New Jahra Hospital 국제사업국 업무를 시작했고, UAE의 Sheikh Khalifa Specialty Hospital (SKSH) 병원의 간호본부장으로 3년간 파견 근무했습니다. 23년도 10월에 UAE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우송대학교에서 3월 1일자로 신임 교수로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죠.

Q.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A. 우송대학교는 졸업생들이 서울대병원과 UAE SKSH에서 성실하고 우수한 간호사들로 평판이 좋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동문 교수님들이 학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서 호감을 느끼고 있던 차에 22년도에 우송대학교 학생들이 UAE SKSH병원 견학을 도와주는 기회가 있었고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의 간호에 대한 배움의 열정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A. 서울대 병원에서 그동안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한 간호사들은 똑똑하고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간호사들로, 학교의 이미지가 병원 관리자들에게는 매우 좋았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와서 학생들이 받는 수업 커리큘럼 구성이나 세계적인 인재를 지향하는 수업 방식과 교수님들의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알게 되니 지금의 훌륭하고 좋은 전통의 비결을 알 것 같습니다. 또한 배움을 향한 열정으로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매일 대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간호의 장래가 너무나 밝아 보이고 더 크게는 대한민국의 멋진 미래가 보여서 더욱 감동하였습니다.

Q. 현재 가르치고 계신 과목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A. 현재는 1학년을 대상으로 간호철학과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성장과 발달과 약리학, 2학기부터는 성인 간호학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제가 국내 병원과 해외 병원의 임상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미리 배우고 가면 좋을 간호사로서 준비할 부분에 대해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의 가슴이 뛰게 만드는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미래의 비전을 가질 수 있게 같이 공부하도록 지지해주고, 곁에 있으면서 함께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A. 우송대학교에 와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 본인이 택한 간호학과에 와서 차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응원해 주고 싶습니다. 힘내고 용기를 내서 더 열심히,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우리나라 미래의 간호가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강다현 기자 / 사진 출처: 강다현



| 권은옥 교수 |





_01 새내기들, 끼를 보여줘!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새내기들의 축제

지난 4월 5일 금요일 우송예술회관(W18)에서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새내기들의 축제인, 새내기 콘테스트(New Spring, NEWS)가 18시부터 23시 동안 개최되었다. 새내기 콘테스트는 끼와 열정을 펼쳐 새내기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로 3월 21일 목요일 15시부터 23시까지 예선을 거쳐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외식 조리 영양학부, 외식 조리학부 한식·조리과학전공 등 총 16팀이 참여했다. 간호학과에서는 24학번 이호영 학생이 조승우의 '지금 이 순간'으로 무대를 선보였다. 치열한 경쟁 속 외식 조리 영양학부 학생들이 대상을 차지했다.

◆ 황예지 기자 / 사진 출처: 최시연 학생



_02 2024 우송체육제 성료

뜨거운 날씨처럼 뜨거웠던 학생들의 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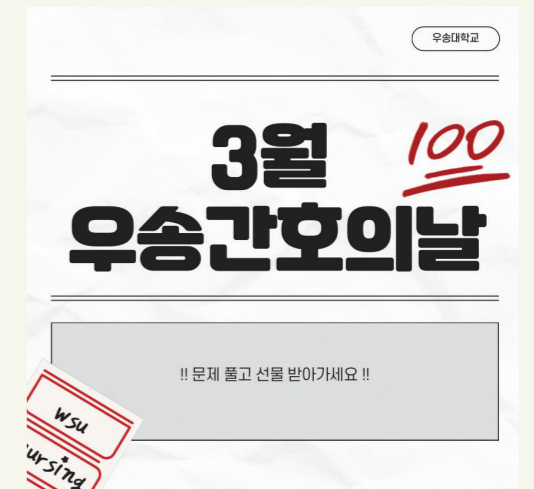
2024년 5월 9일 수많은 학생의 기대 속에 우송 체육제가 시작되었다. 이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우송 체육제는 여자펜싱부 창단식까지 있어 더욱 기대되는 체육제의 시작이었다. 각 학과들은 특성에 맞춰 특별한 입장식을 준비했다. 간호학과는 실습복을 입고 주사기 퍼포먼스를 하며 '승리의 주사를 맞은 우리, 간호는 지지 않아'라는 멘트로 간호학과만의 승리의 포부를 드러냈다. 간호학과는 발야구에 강점을 보이며 예선 1차전에서 승리하였으나 2차전에서 패하여 777 달리기만을 남기고 체육제에 참가하였다. 아쉬운 결과임에도 1학년 학생들이 모두 참가하여 다른 학과를 응원하고 다양한 사진을 찍으며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모든 학과가 하나 되어 안전하고 재미있게 2024년 우송 체육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 정나윤 기자 / 사진 출처: 황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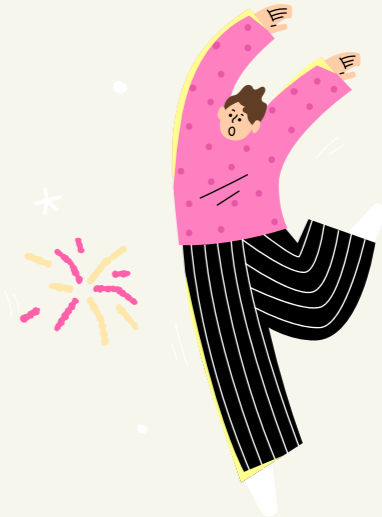
_03 우송 간호인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

우송 간호의 날



2024년 3월 15일 우송 간호의 날이 개최되었다. 매월 15일마다 학생회에서 간호 학우들에게 더 많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개최되는 '우송 간호의 날'은 복지국이 준비한 퀴즈를 풀고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주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우송 간호 학생들의 많은 기대 속에 개최되었으며 특히 24학번 신입생들은 입학 후 처음 경험하는 우송 간호의 날인 만큼 많은 기대를 안고 참여하였다. 이번 3월의 퀴즈는 '세계 보건기구의 명칭은?' 이었고 당첨자 4명은 공차 기프트콘을 받았다. 향후 매달 15일에 개최될 우송 간호의 날에 어떤 퀴즈가 나올지 많은 기대와 관심이 쏠린다.

◆ 정나윤 기자 / 사진 출처: 조소희 학생





_04

맛있는 간식으로 중간고사 이겨내기

시험기간 이벤트

2024년 1학기 중간고사를 응원하기 위해 15대 아랑 학생회 복지국에서 “너의 A+를 응원해” 시험 기간 간식 이벤트를 준비했다. 1, 2학년 학생들은 2시부터 4시까지 해당하는 수업 때 수업이 끝나고 잠깐 앉아서 기다리면 간식을 받을 수 있었다. 작년에는 선착순 140명분의 간식 꾸러미가 준비되어 모든 학생이 참여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학생에게 지급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열심히 준비한 복지국 학생들과 간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준비된 복지국의 행사들은 물론, 학생회의 행사들에 많은 참여를 기원한다.

◆ 황지은 기자 / 사진 출처: 황지은



_06

생명 나눔을 해주신 헌혈자님 감사합니다!

세계 헌혈자의 날



_05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스승의 날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15시부터 16시까지 각 간호학과 교수의 연구실에서 스승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학생회 임원들이 전체 학생들을 대표하여 카네이션과 작은 선물을 전달해 드리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했다. 연구실을 방문하여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며 고마움을 나누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앞으로도 더욱 학업에 정진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과정에서 가르침과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덕담을 전했다. 이번 스승의 날 행사는 교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은 행사였다

◆ 황지은 기자 / 사진 출처: 김서연



2024년 6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이하여 복지국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를 위해 복지국은 헌혈의 집에 방문하여 직접 영상을 찍고 편집한 영상을 공유하며 헌혈에 동참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이벤트를 참여하는 방법은 복지국이 만든 영상을 시청한 후 폼에 나온 문제를 푸는 것이다. 또한 문제를 맞힌 학우들에 한정하여 백다방 기프티콘이 제공되는 경품까지 있어 학우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이 쏠렸다. 세계 헌혈자의 날은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세계 헌혈자의 날'은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 정나운 기자 / 사진 출처: 복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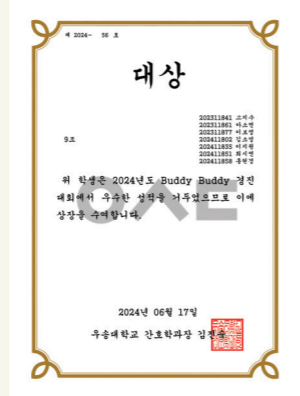
_07

하나 되는 간호학과

버디버디 경진대회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버디버디 경진대회의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버디버디란, 신입생의 적응을 도와주고, 선후배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만의 특별한 활동으로, 1학년과 2학년 약 7명이 함께 한 조를 이루어 한 학기 동안 함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활동 중 '너만 엠지냐? 나도 엠지다?'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릴스- 춤 영상 경진대회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안겨주었다. 각 조는 상의 하에 인스타그램의 릴스 영상을 촬영하여 창의적인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버디버디 9조의 1학년 홍현경 학생은 "한 학기 동안 버디버디 하면서 학업적인 측면에서 선배들께 도움도 받고 동기들과도 좋은 경험을 많이 한 것 같다. 너무 즐거운 추억을 쌓은 것 같아서 행복하고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만의 2024학년도 신입생들은 버디버디 활동을 통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생활에 더 빠르게 녹아들 수 있었고 이에 감사하고 있다.

◆ 최재인 기자 / 사진 출처: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홈페이지



_08

음주는 선택, 절주는 필수!

우송대 절주동아리 주인, 무알코올 시음회를 열다



2024년 5월 13일 월요일 우송대학교 절주동아리(주인)에서 우송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무알코올 시음회를 열었다. 행사의 목적은 음주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었다. 시음회는 알코올의 대안으로 무알코올 칵테일을 시음할 수 있게 하여 무알코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o/x 퀴즈를 통해 미디어 매체 속 잘못된 음주의 정보를 바로잡고, 올바른 음주 습관에 대해 교육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 활동 전과 후에 동아리 내 음주 습관 자가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시음회의 효과 및 무알코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주인의 부원들은 유성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와 연계된 활동을 하고 보건복지부 주관 절주 온 서포터즈단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

◆ 황예지 기자 / 사진 출처: 김재희 학생



_09

간호학과만의 봉사정신을 갖춘 동아리

치매파트너즈 활동



치매 파트너즈는 간호학과로만 이루어진 치매인식 개선 동아리이다. 24년도 기준 약 4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은 6월과 방학을 제외한 모든 달에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토요일마다 요양원에 봉사를 갈 수 있는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편지 교류 활동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관 담당자는 학생들의 꾸준한 편지로 어르신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매달 요양원 어르신들께 드리는 편지 쓰기, 포푸리 선물 만들기, 요양원 봉사 가기 등이 있다. 학생들은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편지로도 의사소통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포푸리 선물 만들기의 경우 알록달록한 방향제를 만드는 활동으로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치매 파트너즈는 매해 3월에 부원을 모집한다. 인터뷰가 따로 없으며 지원서를 유일한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동아리는 학생들의 역할 함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실정이다.

◆ 강다현 기자 / 사진 출처: 정가빈 학생

_10

생명 지킴이, 냥아치

동아리 '냥아치' 소개



'냥아치(냥이들은 아름답고 치명적이야)'는 고양이를 사랑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동아리로 교내 고양이 돌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4-1학기에는 총 2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학술팀, 환경팀, 홍보팀, 돌봄팀으로 나뉘어 활동하였다. 동아리 '냥아치'는 생명을 존중하는 선진문화 시민으로서의 인성을 갖춘 우송인 양성 사업을 목표로 한다. 이에 맞추어 교외에서는 전국 대학교 동물권 동아리 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고양이 쉼터 봉사를 가고 있다. 또한 학교 구성원 및 인근 주민들이 길고양이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교내에 설치된 급식소에 부원들이 돌아가며 고양이에게 사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추후에는 TNR(Trap-Neuter-Return)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 김서연 기자 / 사진 출처: 권서현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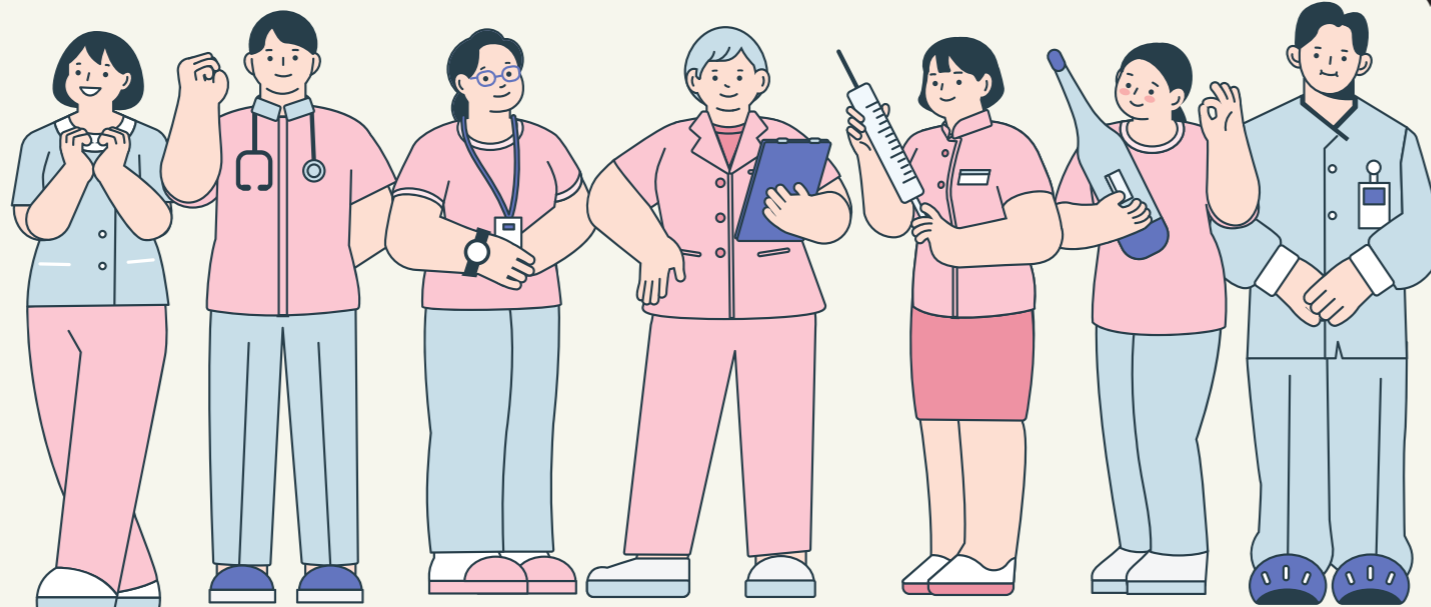


_01
두려움과 설렘, 첫 만남의 현장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24년 2월 23일, 우송대학교 W5 보건의료과학관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대학 생활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해당 행사에 신입생 대부분이 시간을 맞추어 참석하였다. 설렘을 안고 일찍 도착한 학생들은 착석 후 서로 어색한 첫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윽고 오후 2시가 되자 간호학과의 교수진이 입장하였고 신입생들은 교수진으로부터 환영 축사를 듣게 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서연 학생은 "이현주 교수님이, 학생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대학생이 되기까지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하도록 한 활동이 인상 깊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의 일원으로써 지내게 될 신입생들이 우송대학교에 대해, 그리고 4년을 함께할 학우들에 대해 알아갈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행사가 치러졌다.

◆ 최재인 기자 / 사진 출처: 최예진 학생



_02
2024년도 간호학과를 논의하다

교학간담회

3월 25일 16시 30분에 W5 411-3호에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교수진, 조교, 각 학년 대표들과 아랑 학생회가 참석한 이번 2024학년도 1학기 간호학과 교학 간담회에서는 아랑 학생회가 부서별로 학생회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애써 주었다. 작년 교학 간담회에 참여한 김윤서 학생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었으며 과 대표로서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1학기 교학 간담회를 통하여 교수진과 조교들의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아진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강다현 기자 / 사진 출처: 간호학과 과사무실

_03
**다 함께 모여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우송 간호 학우들**

VS 시작



2024년 1학기,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VS(Veritas Studium)가 시작되었다. Veritas Studium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의 야간자율학습 프로그램으로, 주 5일 19시부터 21시 30분까지 우송도서관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주 3회 필수로 참여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페널티가 부여된다. 출석률 상위권 학생에게는 학년별로 각 2명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참여자 전체에게는 실습지 배정 점수가 일부 반영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술국장 김은진 학생은 "전공 능력 향상을 위해 시행한 VS에 많은 학생분이 참여해주셔서 놀라기도 했고 존경스러웠습니다. VS를 신청한 학우분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하며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이어져 나가기를 소망한다.

◆ 황지은 기자 / 사진 출처: 황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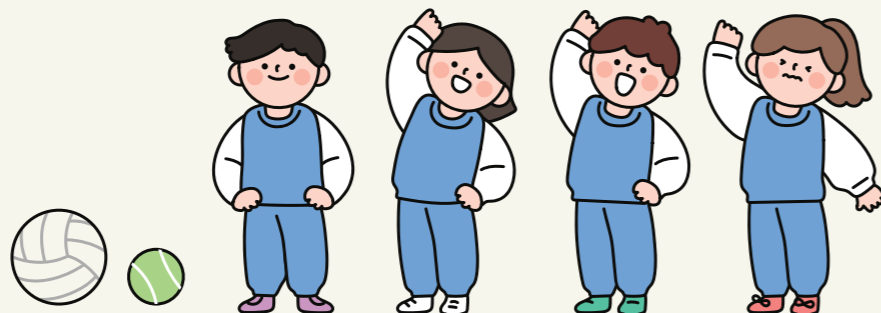
_04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워크숍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우송대학교 체육관에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간호학과 교수진의 축사 후 안전을 위한 준비운동 및 몸풀기 게임인 동글게 동글게를 통해 워크숍의 시작을 알렸다. 그 후 학생들은 한 조에 약 20명씩 총 6개의 조로 나누어져 몸으로 말해요, 이모지 퀴즈, 춤추며 노래 맞추기, 사진 포즈 따라하기, 미션 달리기, 랜덤 플레이 댄스와 개인전 자유투에 참여하였다. 게임이 끝난 후 모든 경기의 점수를 합산하여 1등을 차지한 조의 시상과 경품 추첨을 마지막으로 워크숍은 마무리되었다.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선후배와 동기들 간의 벽을 허물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고 각자의 팀을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선의의 경쟁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번 단합 행사를 시작으로, 우송 간호가 하나로 뭉쳐져 더욱 빛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황지은 기자 / 사진 출처: 강다현



_06

A step forward to being a nurse

The Nightingale Pledge



On Friday, May 17, 2024, the juniors of Woosong University's Nursing Department had completed the Nightingale Pledge in the W1 auditorium. The Nightingale Pledge, named under Florence Nightingale, is what all nursing students undergo before they begin the training session of working in a hospital to experience and learn further of being a nurse. As it is an event which announces the beginning of being a nurse, it is one of the biggest events of the year in the nursing department. For this big event, the freshmen and sophomores volunteered to be committee members to set up what was needed- presents, lightings, and photo booths to keep the memory of the remarkable moment. Ji Seong Kim, a freshmen that participated as a committee member said "It was an honor to watch this event, to see how it is held and celebrate together, and I got to look forward to make the Nightingale pledge myself when in a few years."

◆ Reporter Jaein Choi /
Picture source: Ji Seong Kim



_05

Nursing Department's First Gathering of the Year

Group Meeting 2024

The gathering of all nursing department members of Woosong University happened on Monday April 8, 2024, and took place in the auditorium of the W1 building. It was a big surprise for the attending students when they were welcomed warmly by the student council members, who were standing by the entry. What was more of a surprise was that the student council had prepared an English version of the speech- "I was surprised to hear English during the meeting, I could feel how passionate our department is about being a part of the global community" said Gayeon Lee, a freshmen. During the meeting, students were introduced to former activities from the nursing department such as unique overseas programs for improvement of linguistic abilities and more. Amused by the presentation of the upperclassman, our new students have been greatly motivated for the upcoming school years.

◆ Reporter Jaein Choi / Picture Source: Seo Yeon Kim



_07

나도 이제 생명지킴이

보고 듣고 말하기교육을 진행하다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15시에서 16시, 우송대학교 보건의료과학관 101호에서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 프로그램교육이 열렸다.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의 주제는 고 임세원 교수가 개발한 '보고 듣고 말하기' 프로그램이었다. '보고 듣고 말하기' 프로그램은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를 양성하는 교육이다. 자살자는 생전 주변인에게 90% 이상이 자살 암시 신호를 보내지만 정작 주변 사람이 알아차리는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이를 알아차리기 위해 어떤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들이 있는지를 배웠으며 그들의 신호를 보는 법,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질문법, 그리고 자살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도와주기 위한 말하기 방법을 배웠다. 이에 대해 간호학과 24학번 1학년 이지원 학생은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들에 대해 알아보고 '보고 듣고 말하기'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또한 자살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기관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 황예지 기자 / 사진: 박현아 학생

_08

글로벌 간호사의 첫걸음

2023년도 2학기 Sol-Challenge program



Sol-challenge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시작되어, 전공 내용을 더 심화시켜 연구하길 원하는 4인 이내 학생팀에게 해외 탐방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탐방할 지역과 분야를 정하여 해외 탐방 프로젝트를 기획함으로써 전공 역량, 글로벌 역량 및 팀워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간호학과에서는 2023년도 2학기 Sol-challenge 프로그램에 'AMUSE' 총 1개 팀이 참가하여 '인간중심 간호'라는 주제로 미국을 다녀왔다. 미국에서 이틀간의 청강, 닷새 동안의 병원 실습 및 인터뷰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AMUSE 팀은 "미국 병원을 견학하면서 개별화된 간호가 제공되고 있음과 간호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근무 시스템이 잘 되어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중심 간호'를 들여다볼 수 있었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미국 간호사에 대한 꿈이 솔첼린지라는 소중한 기회를 통하여 확립되어 기쁩니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 김서연 기자 / 사진 출처: 김서연



제 19호 2024년 2학기(2024. 03. 01-2024. 08. 31)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자양동)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보건의료과학관 3층
042-630-9290 <http://nursing.wsu.ac.kr>